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최윤선 · 이해양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무주형 기본소득 대응 촉구

최윤선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과 이해양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통
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촉
구와 무주형 기본소득 대응을 촉구했
다.

최윤선 위원장은 9일 열린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의 지위 향상 및 처우
개선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들의 고된 헌신이 주목
받지 못한 채 잊히고 있다”고 지적하
고 “사회복지시설이 수요자의 삶의 질
을 책임지는 필수 사회안전망이 되어
가는 지금, 그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의 보호가 미비해 근무여
건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
다.

최윤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들은 우리 지역 복지의 중심축이며
그분들의 안정이 곧 우리 이웃과 가족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양 의원

의 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근속수당 지급 및
교육, 건강검진, 심리상담비 지원 △교
통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 △심리·정
서 지원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을 제안
했다.

이어 이해양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소득에 대한 무주군의 빠른 대
응」 5분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농정공약 중 기본소득 정책에 주목하
고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무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무주형 기본소득에 무주군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이해양 의원은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선출직 출마자가 세대별, 분
야별 기본소득을 외쳤고 본인도 통합
형의 「무주군민 행복수당」을 주장했다.
군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행복권을 보
장하면서 지역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형 기본소득 실현
방안으로 △무주군이 정부와 전북도와
함께 재정방안을 모색하여 로드맵 제
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햇빛, 바
람에너지처럼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원
창출 방식 고민 등을 제안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홍삼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성황리 개최

4000여명 선수단 · 가족 참여

진안군이 유소년 축구의 열기로 뜨
겁게 달아올랐다.

진안군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2025 진안홍삼배 전국 유소년 축
구대회’를 진안공설운동장을 비롯해
용담, 상전, 정천면 체련공원 등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진안
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유소년
축구클럽연맹이 주관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90개 팀, 4,000여 명의
선수단과 가족이 참여해 유소년 축구
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대회
는 출전 연령에 따라 U-7부터 U-12까
지 총 11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기장 곳곳은 어린 선수들의 열정
과 땀으로 가득했으며, 수준 높은 경
기력과 예의를 갖춘 태도는 관중과 응
원단의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다.

경기 결과 부문별 우승팀은 △U-7:
스마트아산, △U-8: 전북현대, △U-9:
세천하이루(일본), 애플라인드(진안리
그), 구미리스파르츠FC(홍삼리그), △U-
10: 전북현대(진안리그), 애플라인드
(홍삼리그), △U-11: 전북현대(진안리



진안군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25 진안홍삼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진
안공설운동장을 비롯해 용담, 상전, 정천면 체련공원 등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그), 포항JS롯데아카데미(홍삼리그),
△U-12: HS FC(진안리그), 정읍로얄
FC(홍삼리그)가 차지했다.

이외에도 진안FC와 KJU축구클럽이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며 모범적인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다.

군의 천연잔디 경기장은 참가팀들
부터 우수한 시설과 자연 친화적인 환
경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
기간 동안 운영된 지역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 판매장도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 특산물 홍보에도 기여했다.

특히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대회 기
간 진안에 머무르며 숙박시설과 음식
점을 적극 이용,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전춘성 군수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
을 위해 헌신해주신 진안군체육회 정
봉은 회장, (사)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
맹 정승준 회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유
소년 선수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청년센터, 17~21일 오픈주간 운영

진안군은 청년들의 소통과 성장을
돕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
한 진안군청년센터 ‘월랑’의 본격 운
영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오픈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주간은 진안 청년센터를
지역 안팎에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센터는 진안을 우회길 7에 지
상 4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회의실 ·

소모임실 등 공유공간과 청년 쉼터하
우스로 구성돼 있다.

오픈 첫날인 17일 저녁 6시 30분에는
청년쉐어하우스 입주 설명회가 진행
되며, 마지막 날인 21일 오전 10시에
는 센터 개소를 축하하는 ‘하지(夏至)
맞이 청년축제’가 열린다.

축제 당일에는 △청년 뮤지션 ‘살래
재즈트리오’의 재즈 공연, △소소한
청년 마켓, △감자요리 나눔 행사, △
청년센터 공간 소개, △청춘네컷 하

지’ 사진 이벤트, △체력 부스 등 다
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이용자 등록 이벤트와 현장 추
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등 소정의 선물
도 제공될 예정이다.

진안군청년센터는 앞으로 진안군에
거주하는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네트워킹 구축, 청년정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지역 청년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며, 월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행안부 · 전북자치도 · 무주군, 재해복구사업 지역 합동 안전 점검

지난 7일 행정안전부와 전북특별자치
도, 무주군이 무주군 부남면 유동 소하
천과 문암저수지 등 재해복구사업 지
역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
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을 비롯한
오백림 전북도민안전실장, 황인홍 무
주군수 및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찾아 재해복구 현황과 안전 등을 두루
살폈다.

이 자리에서 이한경 차관은 “과거 재
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재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라며,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재해
되풀이 원인 중 하나인 부실시공 근절
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우기 전 주요 공정에 대한 마무
리도 강조했다.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유동 소하천은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호안
10곳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 무
주군이 예비비를 활용해 지난해 9월부
터 11월까지 설계를 진행, 12월부터 소
하천 호안, 도로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복구 공사(총 사업비 4억 원)에
착수했다. 준공은 올해 7월 초로 예정
돼 있다.

대소리 문암저수지 역시 지난해 7월
저수지 제방이 유실되면서 피해가 발
생한 곳으로, 농어촌공사 안전잔디반
부로부터 긴급 점검(2024. 7. 17.~18.)
후 올해 9월 제방 축조, 호안 및 여·
포장 복구 공사(총 사업비 4억 원)에
착수해 오는 9월 20일 준공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이 9일 무주군청에서 ㈜도서관 보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도서관 보리 ‘맞손’

생태 · 어린이 관련 다양한 홍보 채널 · 체험의 장 확대기로

무주군이 9일 무주군청에서 ㈜도서관
보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문숙 ㈜
도서관 보리 대표이사 등 양측 관계
자 1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협약은 ‘생태’와 ‘어린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지닌 양측이 다양한 흥
보 채널을 공유하며 체험의 장을 확대
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도서관 보리는 어린이를 위한 생
태종합 월간지 “개뽕이네 놀이터”를
발간하고 있는 출판사로, 협약을 통해
‘무주반디랜드’ 생태 관련 기사를 해
당 잡지에 수록하고 ‘어린이 생태 감
수성 향상’ 협력 프로젝트 내용을 매
달 광고하기로 했다. 또한 세밀화 도감
세트(17권)와 “개뽕이네 놀이터” 1년
정기구독을 제공한다.

무주군은 ㈜도서관 보리 “개뽕이네
놀이터”의 어린이 기자가 무주반디랜
드 방문 시 무료 입장을 약속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년의 역사와
전국에 정기구독자 4천 명을 확보하고

있는 어린이 생태잡지를 발행 중인
‘보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개뽕이네 놀이
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 자
연생태의 보고인 무주가 알려지고 또,
반딧불이를 비롯한 전 세계 희귀 곤충
과 식물, 하늘의 별자리까지 다양하게
보 채널을 공유하며 체험의 장을 확대
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이와 “많은 어린이가 무주를 찾게 되
기를 바란다”라며 “무주가 자라는
어린이들의 소중한 자연생태 배움터로
서 존재할 수 있도록 잘 지키고 가꿔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문숙 ㈜도서관 보리 대표이사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찾아가 보고, 들
고, 만지며 오감으로 생태 감수성을 키
워갈 수 있는 곳으로 제각인 곳이 바
로 무주라고 생각했다”라며 “무주군과
의 인연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바란
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가꿈’ 인지도 확산 위한 ‘장수몰’ 할인 이벤트

장수군이 운영하는 지역 농특산물 쇼
핑몰 ‘장수몰’에서 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장수가꿈’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10일부터 고품질 장수 토마토를
4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특별 이
벤트를 진행한다.

군은 ‘장수가 꿈’인 토마토의 ‘장수
가꿈’이라는 주제로 장수군의 청정
자연에서 정성껏 가꾼 신선한 토마토
를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장수’
의 꿈’을 전한다는 의미를 지역 온라
인 쇼핑몰인 ‘장수몰’을 통해 국민에
게 전달하고자 이번 할인 행사를 기획
했다고 9일 밝혔다.

‘장수가꿈’은 “장수군에서 가꾸고,
먹으면 장수한다”는 중의적 의미의 군
농특산물 프리미엄 공동브랜드로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와 소비자 체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장수몰’에서는 오는 10일
부터 고령지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신
선한 장수 토마토(5kg, 정가 17,500)를
40% 할인된 10,500원에 구매할 수 있
으며 회원당 최대 10상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단 토마토 총 1,500상자를
선착순으로 판매해 조기 종료될 수 있
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과 협약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희식)는
계남면에 위치한 ‘장수 만남의 광장’
더레드하우스에서 (사)장수식품클러
스터사업단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유봉수 장수군장애인체
육회 상임부회장, 송남수 (사)장수식품
클러스터사업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장수
군 농산물과 먹거리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레드하우스’에서 장수 농
특산물을 주재료로 한 베이커리·브런
치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의 부
가치 향상과 관광육 유에 기여하



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수
군 농특산물 홍보 강화 △장애인 체육
활동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
발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관내 장
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6개 보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
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훈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안군은 9일 관내 6개 보훈단체장
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보훈
가족의 권익 증진과 예우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
롯해 각 보훈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지



역 내 보훈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
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
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매주 화요일
민원실 연장 운영

장수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법정 공휴일 제외) 오후 8시부터 군청 민원실을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 민원실 연장 운영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되며 평일 근무 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민원 서비스로 민원 편의 제공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연장 운영에서는 △주민등록 △여권 발급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임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은 물론, △토지이동 △건축 인·허가 △부동산 △마을경관 관련 민원 등 다양한 업무가 가능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장수군은 기존 종식시간 무휴 민원실 운영에 이어 이번 연장 운영을 통해 시간 제약으로 민원 업무 처리가 어려운 농업인과 맞벌이 가구 등 바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수군은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강화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습지 2개 신규 발견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산림자연 조사 중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습지 2개를 신규로 발견했다고 전했다.

신규 발견한 습지는 고산습지로 해발 1,070m의 경사지에 위치한 자연습지는 낙태산습지로 명명했으며, 다른 습지는 해발 880m에 위치한 화전페깅지로 홍두개습지로 명명했다.

산림습지는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오염정화 기능과 탄소흡수원 기능을 하며, 산림자연 경관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전문기관인 국립수목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오는 9월 개원하는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협력하여 산림생태 보존시설 설치 후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서, 현장대응
능력 강화 FTX훈련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은 긴급한 상황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및 음주단속 상황을 대비하여 FTX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경찰청에서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 사고현장에 차량 통과속도를 20Km/h 이하로 유지하고 정체유발로 안전공간 확보 및 후방 방호용 LED 경광등(燈)을 설치하는 등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황재현 경찰서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상황별로 매뉴얼에 따라 부상자의 구조조치와 교통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상황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음주운전을 퇴출하기 위해 연중 홍보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